



희망플레너 이종길 씨
"SNS는 행복의 길 진하는
소통의 창구죠"
16·17면

현대불교

금주의 법구- <보왕삼매론>
친구에게 이익을 추구할라
이익을 취하면 친구란 의리가 상한다.
순수한 생각으로 오래동안 교우하라.

1994년 10월 15일 창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57년 단기 4346년(음력 10월 25일) · 주간

제968호 2013년 11월 27일 수요일

불교사회NGO는 '표류 중'

침체된 불교NGO, 활성화 방안은?

불교계 사회참여 운동에 'NGO'가 보이지 않는다. 종단 차원의 위원회들의 활동하지만, 대중들을 이끌며 시민사회운동을 주도해야 할 불교계 NGO들은 사안별로 성명서를 내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불교계 NGO들은 1990년대를 기점으로 확산됐다. 참여불교, 환경, 통일 등 분야도 다양했고 활동 역시 두드러졌다. 특히 생명평화를 위한 도보순례의 도법 스님, 새만금을 살리기 위한 3보1배의 수경 스님, 천성산 살리기의 지을 스님 등을 필두로 한 불교환경운동은 한국환경운동 지령을 바꿔 놓을 정도로 파급력이 컸다.

활동가 부재가 큰 원인

하지만 현재 불교사회운동 계열 NGO의 상황은 그리 좋은 편이 아니다. 불교환경운동의 중심이었던 불교환경연대는 수경 스님이 떠난 후 제대로 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고사 지경에 이르렀다. 재가운동의 산실인 참여불교재가연대는 이수덕 대표가 취임하고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전보다 활동이 눈에 띄지는 않는다는 평가다.

그러나 14개 불교NGO와 승·재가단체를 중심으로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가 구성돼 유기적 관계를 유지하며 교계 안팎의 대형 사안에 대해 대응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일선의 불교 NGO 활동가들은 애초 불교사회참여운동의 기반이 약했고, 이를 보완

할만 한 활동가 양성에도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정용기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불교 NGO운동의 기반은 처음 시작부터 미약했다"면서 "그나마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사회운동에 원력이 있던 스님들의 활동이 두드러져 불교 NGO운동이 활성화돼 보였지만 스님들이 떠나고 나니 당장 단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승가든 재가든 사회참여운동에 대한 교육이 전무하다"며 "불교의 눈으로 어떻게 세상을 바라봐야 하는 지를 고민하고 실천하는 대중과 이를 이끄는 활동가가 부재한 것이 현 상황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열악한 환경과 수직적 의사결정 구조가 활동가들이 불교NGO를 떠나는 원인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불교NGO단체에서 퇴직한 한 활동가는 "활동가로서 불교NGO에서 몸 담았지만, 위에서 시키는 일을 처리하기에 급급한 부분이 많았다. 의사결정구조 역시 수직적이다"라면서 "스님들과 관련 신도들이 후원하다보니 단체의 독립성과 재정 자립도가 좋지 않다. 활동가로서 자부심을 갖고 살기에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들만의 운동'이 가져온 폐해

활동가 부재와 양성 실패와 함께 시대에 맞는 새로운 운동 패러다임을 정립하지 못한 점도 불교사회운

동 계열 NGO가 침체된 이유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사실 불교계를 포함한 한국사회 NGO는 주로 정부 정책과 기업의 개발 사업에 대한 '대형 이슈 파이팅'에 자신의 역량을 쏟아부었다. 하지만 대형 개발 사업들이 잇달아 추진되며 NGO운동이 성과를 내지 못했고, '이슈파이팅' 위주로 대중성이 결여된 NGO운동에 시민들은 외면하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은 불교사회운동 계열 NGO에도 그대로 적용됐다.

스님 떠나고 대중 외면

재정·인력난, 이종고에

명맥만 유지 단체 많아

부처님 가르침 접목한

신 운동 패러다임 절실

'시민불자' 양성도 필요

불교생명윤리협회 대표 법승 스님은 "NGO운동과 사회참여에 대한 승·재가의 철학이 부재하다"면서 "장기적 아젠다를 가지기보다는 현안을 쫓기에 급급해 운동의 지속성을 가지기 힘들었다. 그러다 보니 대중과 시민들의 공감을 얻어내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래도 희망은 있다

사실 수행을 통해 지혜와 통찰의 힘을 기르고 자비를 실천하는 것을

강조하는 불교 사상을 기반으로 한 불교 NGO는 대안문명을 이끌 수 있는 가장 좋은 요건을 가지고 있다. 불교의 사회참여운동에 대한 철학과 이론 정립과 이를 통해 새로운 대안 운동으로서의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법승 스님은 "일반 사회의 시민운동을 주도할 정도로 불교NGO가 활성화돼야 한다. 이는 포교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전현직 활동가 스님과 재가가 허심탄회하게 현재 불교NGO의 절박한 상황을 논의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활동가는 "더 이상 반대만 하는 운동은 대중의 공감을 얻을 수 없다"면서 "스스로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풀뿌리 NGO운동에 필요하다. 새로운 운동의 방향을 설정할 때"라고 제안했다.

불교NGO들도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실제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는 교육을 통해 불자들의 시민 의식을 고취시키고 불교 NGO운동의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한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정용기 위원장은 "불교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사회 현안에 동참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내년까지 개발하려 한다"면서 "프로그램이 개발되면 자체 교육을 진행해 청년들의 참여를 유도해 '시민불자'로 거듭나게 하고 종단과 일선 사찰에 보급할 수 있도록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종일 기자 motp79@hyunbul.com



"바른 불자로 거듭나겠습니다" ... 5천불자 수계

한마음선원(주지 혜원)은 11월 17일 본원 5층 법당에서 5000여 사부대중을 대상으로 '제25회 수계대법회'를 거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수계자 발원 등 대형 스님의 법문 영상 시청과 함께 주지 스님의 인사말이 이어졌다. 혜원 스님은 "물을 퍼봐야 물의 깊이를 알고, 마셔봐야 그 물맛을 안다"며, "말 뿐 아니라 '행'으로써 오계를 지키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나은 기자

구전된 신라 '갑산사' 실체 찾다

19일 경주 공장부지서 부재 확인

경주시 안강읍 갑산리 일대 공장 신축부지에서 신라 대왕사찰로 구전되던 갑산사의 실체가 드러났다.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이사장 김홍진)은 11월 19일 "발굴조사를 벌인 결과 통일신라에서 고려시대에 만든 석축(石築)과 석렬(石列) 등 절터 흔적과 명문 기와 및 유물을 다수 확보했다"고 밝혔다.

발견된 명문 기와에는 '甲山寺'

혹은 '岬山寺'라는 글자 새김이 되어 있다. 명문기와와 함께 벽돌에 구운 전불 또한 축대 기단에서 출토됐다. 길이 8.3cm, 너비 7.3cm, 두께 1.3cm의 벽돌 전면에는 시무외인(施無畏印) 인상을 중심으로 좌우 협시보살상(夾侍菩薩像)을 배치하고 협시보살상 위에는 형상으로 변해 나타난다는 화불(化佛)이 새겨져 있다. 전불은 경주 일제강점기 경주 인왕



경주 공장 신축부지에서 발견된 갑산사 명문기와.

리에서 수습된 바 있었지만 그 정황을 알 수 없었다. 갑산사의 경우 1916년 지표에 '갑산사(甲山寺)'라는 명문기와가 발견돼 절터임이 추정됐다.

노덕현 기자

세계유산 보존위한 기구 구성된다

조계종·문화재청, 대장경 긴급 자문회의서 논의

시급한 경판부터 보존처리

장기적으로 세계 문화유산

관리 위한 기구 구성키로

민족의 소중한 유산인 팔만대장경 경판이 크게 훼손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문화재청과 불교계가 긴급조사를 실시하고 (가칭) '세계문화유산보존위원회'를 구성해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최근 석굴암과 대장경 등 불교문화재에 대한 훼손 위험이 높아지는데 따른 것이다.

조계종 문화부와 문화재청은 11월 22일 오후 1시 해인사에서 긴급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단에는 조계종 문화부장 혜일 스님 등 조계종 관계자와 해인사 보존실장 성안 스님 등 해인사 스님들, 문화재청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긴급조사에 참여한 혜일 스님은

"조사에서 훼손이 진행되는 상황은 육안으로 발견되지 않았지만 정밀조사의 필요성을 느꼈다"며 "자문회의에서는 조사단을 구성하기로 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세계문화유산보존위원회를 구성하고 문화재를 보존하는데 불교계를 비롯한 문화재 전문가들이 지혜를 모으기로 했다"고 말했다.

언론에 공개된 훼손된 대장경판은 300여 장으로 작은 파손 등을 합하면 1만여 장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가져왔다.

이에 문화재청은 11월 20일 입장을 발표하고 "2000~2010년 해인사 대장경판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손상이 확인된 바 있다"며 "조계종단과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조해 2014년부터 국고보조사업으로 보존처리가 시급한 대장경판을 중심으로 먼저 수리·보존처리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려 13세기에 제작된 이래 글자 일부의 훼손·마모 등 보존상태가 좋지 않은 경판이 발생했고 이들 대부분은 원판이 훼손돼 이를 대체하기 위해 이후 만들어 교체한 중부판인 것으로 확인된다"고 덧붙였다.

노덕현 기자

968호 INDEX

시방세계 불교계 연발 모시행 활발



종합 2,3
익산 미륵사지 석탑 복원된다
필리핀 재난 돕기 불교계 '한마음' 제6회 여성불자 108인 선정

신행 6
시각장애인 위한 경전 녹음 봉사

학술 9
동국대·금강대 공동 학술대회 전국 사지서 국보급 문화재 출토

해외 18
'캄보디아' 동영상, 美 이목 집중



화엄의 세계

그구법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진리에 대한 간절한 마음모아 禪, 教, 律의
큰 스승들을 모시고 문수보살의 지혜와 보현보살의 실천
그리고 선재동자의 금강과 같은 구법의 마음을 배우고
이 공덕으로 일체 유정과 무정들이 정도에
왕생하기를 발원하는 화엄산림을 봉행하오니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불지종가 영축총림 통도사 주지 원산 도명 합장

※ 매주 일요일마다 천도재를 지냅니다.

- 회비 영가동참비: 1위당 이만원
온산림 동참금: 이십만원
반산림 동참금: 십만원
- 문의처 통도사 중무소 ☎ 055)382-7182
통도사 화엄전 ☎ 055)381-1288
- 교통편 부산지역 온천정 지하철역 1번 출구 앞 (08:00~09:00)
울산지역 공설운동장 (07:30) → 학생공원 (07:35)
→ 우정지하차도 (07:40) → 구고속터미널 (07:50)
→ 공영R (08:05) → 무거R (08:15) → 통도사
대중교통 부산노포동 종합터미널, 울산 시외버스터미널, 동대구 성남고속터미널
승용차 경부고속도로 통도 IC 통과 후 통도사로 진입